

현시기 녹색상품의 개발리용이 사회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

조영남

현시기 녹색상품의 개발리용이 사회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해명하는 것은 녹색상품의 생산을 늘이고 생태환경 보호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환경보호문제는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됩니다.》

오늘 생태환경보호와 사람들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생겨난 녹색상품의 적극적인 개발과 그의 광범한 리용은 사회경제생활에서 여러가지 영향을 미치고있다.

일반적으로 녹색상품은 그의 연구와 개발, 생산과 포장, 수송, 판매의 전과정에서 특정된 환경보호의 요구에 부합되며 생태환경에 해를 주지 않고 자원의 보호와 회수처리에 리로운 상품이다.

녹색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된것은 1978년 도이쾰란드에서 란초색을 표식한 제품이 인체뿐아니라 그 생산과 소비에서도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환경표식제도를 실시한 때부터이다. 이때부터 녹색이라는 말은 물질순환의 시작과 끝이 고리를 이루어 폐기물과 오물이 없고 균형이 조화롭게 보장된다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녹색상품의 개발리용이 사회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및 부정적영향으로 갈라볼수 있다.

녹색상품의 개발리용이 사회경제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영향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생태환경보호에 적극 이바지한다는것이다.

지난 시기 상품생산에서는 상품의 유용성, 질적특성, 형태와 크기 등 경제적측면만 중시되면서 원료채취로부터 시작하여 가공, 생산, 리용의 전과정에서 생겨나는

오물, 폐설물의 처리에 대하여서는 큰 관심을 돌리지 못하였다.

녹색상품은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생태원료를 기본원료로 하고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공정을 피하며 천연적인 방법으로 또는 새로운 기술공정에 의하여 만들어진것으로 하여 사람의 건강에 해를 주지 않고 자연환경을 보호할수 있게 한다.

녹색상품은 자연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매우 좋은것으로 하여 사용후 자연환경에 버려져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녹색상품인 《생태옷》, 《녹색옷》을 보면 생산과정에 천연재료인 목화, 역삼 등을 원료로 쓰며 재배과정에 화학비료, 살초제, 살충제를 쓰지 않고 순수 유기농법에 의하여 생산된 원료를 기본재료로 한다. 그리고 편직공정에서는 산화제, 축매제, 세척제를 쓰지 않고 날염공정에서는 물감, 폼알데히드와 같은 일체 화학재료를 쓰지 않을뿐아니라 가공단계에 쓰이는 보조재료인 실, 고무줄 등도 모두 천연물질이며 사용후 자연환경에 버려지면 인차 물과 탄산가스로 완전히 분해되게 설계되었다.

녹색상품의 개발리용이 사회경제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영향은 다음으로 그것이 순환경제의 발전을 촉진시켜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한다는데 있다.

녹색상품의 개발과 리용은 닫긴형경제체제를 순환형경제체제로 이행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닫긴형경제체제는 천연자원의 개발과 리용이 한단계에서 완전히 끝나며 그의 반복재생이 거의 없이 폐기 및 폐설물로 버려지는 경제체제로서 이때 버려지는 각이한 폐설물과 오물은 자연환경, 생태환경을 어지럽히고 오염시키는 결과를 빚어내게 한다. 그러나 순환경제는 이와는 전혀 다

른다.

순환경제는 자원을 부단히 반복리용하는 경제이다. 다시말하여 생산과 폐설물의 종합적리용을 결합시킨 경제이다. 순환경제에서는 생태학적물질순환과 에네르기의 이동법칙에 따라 깨끗한 생산, 자원의 종합적리용, 지속적인 소비 등을 하나로 결합하여 경제체계가 자연생태계의 물질순환에 들어가 《자원—생산물—재생자원》의 순환을 형성한다.

순환경제를 실현하자면 두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모든 상품생산에서 경제적실리와 사회적인 효과, 환경효과를 통일시키고 물질이 충분히 순환리용되게 하여야 한다. 즉 생산된 모든 생산물들이 사용기간이 완료된 후에도 처리되어 종합적으로 리용하기 쉽게 될뿐아니라 생산물이 사람들의 건강과 자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해연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자원을 절약하고 종합적으로 리용하는것과 함께 폐기물을 감소화, 무해화하여야 한다. 다시말하여 환경에 피해를 주는 폐기물을 최저한도까지 감소시키거나 해로운 물질적요소를 최대로 제거하여야 한다.

순환경제의 실현조건은 상품생산의 록색화가 더욱 다그쳐지고 록색경제, 록색산업이 적극 추진되면서 완성되어나간다. 그것은 록색상품이 그의 본질적특성으로부터 자연환경에 대한 적응이 좋고 자연적순환이 가능한 상품이기때문이다.

록색상품의 적극적인 개발과 리용으로 형성된 순환경제체제는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순환경제가 형성되면 상품의 생산과 리용과정에 산생되는 여러가지 폐기물, 폐설물, 오물을 종합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생산에 필요한 많은 물질적원

천을 제때에 보장하여 사회적재생산을 더욱 다그칠수 있게 한다.

폐기물, 폐설물, 오물을 재가공하면 원래의것과 같은 자원을 만들수 있고 다시가공하여 쓸수 있는 자원도 만들수 있다.

현재 세계적인 강철생산량의 약 45%, 동생산량의 약 62%, 연생산량의 약 40%, 종이제품의 약 35%가 재생자원을 회수리용하여 생산한것들이다.

록색상품의 개발리용이 사회경제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영향은 다음으로 그것이 과학과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다.

록색상품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국내, 국제시장들에서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록색상품의 개발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으며 록색개발기술은 점차 정보기술, 생물기술, 나노기술을 비롯한 첨단기술들과 결합되어 발전하게 되었다.

현재 세계적으로 볼 때 록색식품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토지분석에서 정보기술을 리용하여 그 주변의 생태환경, 오염상태를 장악분석하는 고도로 발전된 환경정보망을 형성하고있으며 컴퓨터지원에 의한 정성분석을 통하여 주변의 환경변화상태를 예측예보하면서 록색식품품질조건에 맞는 유기알곡작물을 생산하고있다.

여러 록색제품생산에서는 생물기술을 리용하여 천연살충제와 생물에네르기를 생산하고있으며 철, 칼시움, 망간, 아연 등 10여종의 금속을 폐기 및 폐설물로부터 회수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나노기술을 리용하여 탄소나노관을 만들어냄으로써 수소저장합금보다 수소소착능력이 비할바없이 높은 수소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를 만들어내고있다.

지금 록색상품개발에 리용되는 록색기술에 대한 연구는 일부 나라들에서 더욱 심화되어가고있으며 그 연구와 개발비용은 해마다 10%이상씩 늘어나고있다.

이와 같이 록색상품의 개발과 리용은 첨단과학기술을 한계단 끌어올리고 경제발전을 적극 추진시키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경제생활을 더욱 문명하게 하고있다.

록색상품의 개발리용이 사람들의 사회경제생활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있는 반면에 오늘날 이 분야에서는 일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리기주의적이며 독단주의적인 정책으로 하여 오히려 그의 근본목적과 사명과는 어긋나게 사회경제생활에 적지 않는 부정적영향도 초래하고있다.

록색상품의 개발리용이 사회경제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은 무엇보다먼저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록색상품개발이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이 나라들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있는것이다.

자본주의나라들은 우선 록색상품개발을 통하여 저들의 영리적목적을 실현하려고 하며 이러한 책동은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발전을 저해하고있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은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발전의 미숙성을 기회로 이 나라들을 록색상품생산을 위한 원료, 연료원천기지로 만들고 그것을 헐값으로 빼앗으면서도 록색장벽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 놓고 발전도상나라들의 상품이 자기 나라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있다. 이것은 오늘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은 또한 록색상품개발을 통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에 침투한 자본주의대독점기업들은 저들의 리용만을 추구하면서 공해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아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어 사람들의 건강과 자연환경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있다.

결국 이 나라들에서 환경보호문제는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지난날에는 물론 오늘날에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자본수출의 중요한 목적은 자본의 해외팽창을 통하여 끊임없는 독점적고물리운을 획득하는것과 함께 자국내에서 그 설립과 운영이 금지되어있는 산업 즉 생태환경파괴와 오염을 산생시키는 산업을 해외에 진출시켜 지속적인 리유흥득에 복무하자는데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해외팽창정책에 의하여 이루어진 발전도상나라들의 공해산업은 오늘날 이 나라들의 경제명맥을 틀어쥐고있음으로 하여 세계적인 비난의 대상으로, 생태환경파괴의 기본거점으로 되고있다.

자본주의독점기업체들은 환경보호규제가 약하고 원료, 연료값이 낮은 발전도상나라들로 공해산업기업체들의 생산공정을 옮기였으며 결국 이러한 독점체들의 지배주의적책동으로 하여 이 나라들의 자연환경은 점차 파괴되고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록색상품의 개발리용이 사회경제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은 다음으로 미국을 비롯한 일부 발전된 나라들의 리기적인 록색상품개발로 하여 세계적으로 식량값이 급격히 뛰여올라 많은 나라들의 경제생활에 지장을 주고있는것이다.

최근년간 세계시장에서 식량가격이 급속히 뛰여올라 많은 나라들의 경제생활에서 여러가지 난관이 조성되였는데 식량가격이 오른 원인의 하나가 바로 록색상품개발의 명목밑에 진행되고있는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알곡소비에 있다.

물론 세계 여러 지역, 여러 나라들에 련이어 들이닥친 자연재해와 지구환경의 변화로 하여 식량생산이 지난 시기에 비하여 적지 않게 줄어들었지만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생산된 알곡의 막대한 량을 생물원료로 전환시킴으로써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인류의 생존을 파국적인 상태에 밀어넣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을 비롯한 생산력이 발전되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곡색상품에 필요한 알곡소비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은 많은 량의 알곡을 깨끗한 에네르기원료로 바꾸 리용함으로써 식량가격이 급속히 올라가고있다.

미국에서는 생물연료의 생산을 위하여 다량의 강냉이를 소비하고있다. 2007년에 이 나라는 원유수입량과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인다는 미명밑에 강냉이생산량의 25%를 생물연료생산에 소비하였다. 2009년에는 알곡생산의 4분의 1을 생물연료생산에 소비하였는데 이것을 세계평균소비수준으로 환산하면 3억 3천만명을 1년동안 먹여살릴수 있는 량이라고 한다.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의 알곡에 의한 생물연료생산의 증대로 하여 2008년 세계시장의 식량가격은 무려 75%

나 증대하였다.

알곡작물의 지나친 소비에 의한 생물연료생산은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자기들만이 잘살고 편안하면 그만이라는 개인리기주의가 골수에 들어차고 저들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행위도 서슴지 않는 제국주의자들의 경영관리방식이다.

오늘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자본주의나라들의 이러한 리기적인 생물에네르기개발에 대처하여 비알곡작물에 의한 생물에네르기생산을 장려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있으며 그 생산을 다그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곡색상품의 개발리용이 사회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인식하고 경제관리실천에 적용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만드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